

강진·해남·순천 '스마트 그린도시' 된다

환경부 한국판 뉴딜 첫 공모 선정

한국판 뉴딜 첫 공모사업인 환경부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에 강진군과 해남군, 순천시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기후·환경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진군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만 이루어진 도로 공간에 가로수와 아우러진 탄소제로 교통로로, 콘크리트수로를 친환경 녹색수로로 탈바꿈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해남군은 자원순환, 환경교육, 생활안전 등 다양한 환경분야를 결합한 자원순환마을로 조성한다. 순천시는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장전동 일대 고가도로에 빗물을 활용한 정원을 꾸민다.

◇강진군 '친환경 탄소제로·녹색수로' 건설
강진군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에 입각해 목민심사에 나와 있는 '전택, 양림, 치료'를 실천하는 스마트 그린도시를 추구한다.

'전택(川鑿)'은 '빗물을 모아 물을 아끼고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뜻으로 마을 내 불투수형 공간을 투수형 포장으로 개선하고 단전된 수로를 연결해 물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양림(養林)은 '들과 산림을 가꾸어 후손을 위한다'는 뜻으로 탐진강변 제방사면 추이대에 약취 저감숲 조성, 마을 나대지를 통한 마을숲 조성, 거점녹지 확보 및 그린웨이로를 조성한다. 치료(治路)는 '백성을 기쁘게 하는 길을 낸다'는 뜻으로 앞으로 조성될 강진역과 연계한 산책로 정비, 스마트 생태교통시설 도입, 그늘막과 경관수 도입으로 도로경관을 개선하고, 쓰레기

강진 '탄소도로·녹색수로' 해남 '뜰뜰한 자원순환 마을' 순천 '고가다리 청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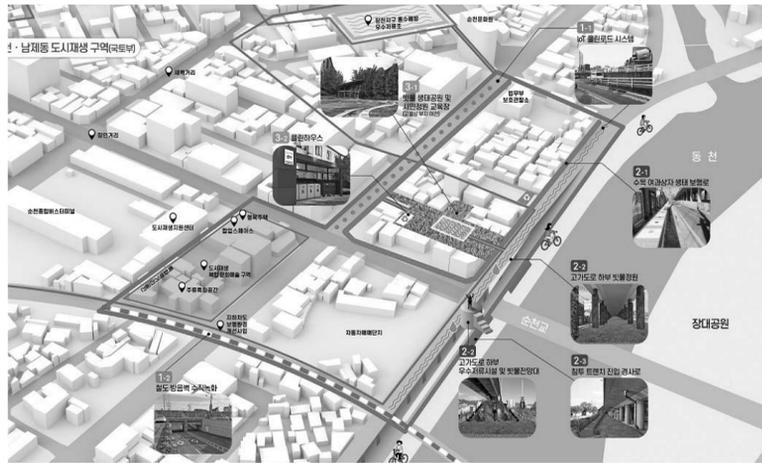
매립장 부지를 활용해 미래 교육을 위한 환경교육장으로 변화시켜 생태교실로 이용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파변화된 녹지공간을 연결해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만남 공간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군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종합선도형으로 전국 군단위에서는 유일하다.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60억원 등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해 앞으로 2년간 남포, 목리, 평동, 강진만 생태공원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해남군 '뜰뜰한 자원순환 마을'
해남군은 자원순환, 환경교육, 생활안전 등 다양한 환경 분야를 결합한 '뜰뜰한 자원순환 마을' 스마트 그린도시를 구축한다.

해남읍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읍시가지 마을에 재활용 교환센터와 자원순환 입체체험장, 재활용 동네은행을 설치한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공동터발과 미니화단 조성, 스마트 CCTV 설치 등을 추진한다.

분리수거가 취약한 단독주택지에 들어서는 재활용 동네은행은 압축파쇄분리수거기, 음식물 처리기, 스티로폼 압축기 등 분리수거할 일체가 구비되는 시스템으로서 농촌지역 자원순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내년부터 2년간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한다.

◇순천시 '고가다리 청수원 조성'
순천시가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는 '청수원(淸水園)'이다.

매연과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장전동 고가다리 아래 4만4000㎡ 부지에는 빗물을 재활용한 마을 정원과 미세먼지 차단 숲 등을 조성한다. 고가다리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은 400l의 저장탱크를 거쳐 정화해 정수수로 쓴 뒤 동천에 유입하도록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강변로 고가 다리로 인한 대기오

염과 녹지 부족 등 고질적인 생활환경 문제를 IT기술을 활용해 해결하고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을 제안해 호평을 받았다.

순천시는 내년부터 2년간 국비 60억원 등 104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사업까지 추진하게 됐다"며 "강변로 고가 다리로 인한 대기오염과 녹지 부족 등 고질적인 생활환경 문제를 첨단 정보통신(IT) 기술을 도입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남철하·박희석·김은중 기자 chou@

새해부터는...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 순천시, 첫째 300만원 등 5배 ↑

순천시는 '아이의 평생의 선물'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새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해 지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순천시는 그동안 자녀를 출생하면 월 5만원씩 60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했으나 새해부터 자녀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첫째 자녀를 출생하면 300만원, 둘째 자녀는 500만원, 셋째 자녀는 700만원, 넷째 자녀는 10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출생하면 1500만원을 연 1회 6년에 걸쳐 분할지급한다. 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출산 축하선물로 둘째 자녀 이상 출생한 가정에 순천사랑상품권을 20만~50만원까지, 매일 20l 쓰레기종량제 봉투 5매를 2~5년간 차등 지원한다.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에선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을 신설해 지급하며, 그동안 30만원 지급하던 신생아 양육비를 새해부터는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순천시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남 최초로 다자녀 가정 기준을 둘째 자녀 이상 출생한 가정으로 확대해 문화·복지 혜택 등 26종을 지원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도 예초 50% 지원하던 것을 90%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이 출산을 앞둔 가정에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감동 출산정책을 발굴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순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5월 유공자 전원 '명예수당' 화순군, 매월 6만원씩

화순군은 1월부터 화순에 거주하는 5·18 유공자 전원에게 매달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화순군은 그동안 취약계층 5·18 유공자에게만 생계지원비 명목으로 월 13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개편해 모든 5·18유공자에게 '민주명예수당'으로 월 6만원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5·18유공자에게는 생계지원비 7만원을 추가 지급해 기존 지원금과 동일하다. 취약계층 5·18 유공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 소득이 있는 가구로 정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민주화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최대한 예우하기 위해 화순에 거주하는 모든 5·18유공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낙안읍성 최초 축성 '김빈길 장군' 620년만에 귀환

순천시, 동상 건립 제막

순천 낙안읍성을 최초로 축성한 김빈길 장군이 620년만에 고향 낙안으로 돌아왔다.

순천시는 최근 낙안읍성의 최초 축성자인 양해공 김빈길 장군의 동상 건립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낙안읍성 옆 동대공원에서 열린 제막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허석 순천시장과 낙안읍성 및 낙안면 주민 대표, 김빈길 장군 후손 등 제한된 인원만 참여했다.

김빈길 장군은 낙안 출신으로 순천시 대표 문화유산인 낙안읍성을 최초로 축성해 왜구의 침략을 막은 영웅이다.

또 30여년간 수군장수로 봉직하면서 왜구를 소탕하고 민생을 안정시켜 '항상 물 위에서 나라의 장성(長城)이 되어 왜구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김빈길 장군은 오랫동안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잊혀진 영웅이었다.

순천시는 잊혀진 김빈길 장군의 공적을 널리 알

리기 위해 지난해 순천역사인물 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에서 장군의 현창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최종적으로 김빈길 장군 동상을 건립하기로 시민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 지난 5월 주민대표 및 예술인 등이 참여한 '김빈길 장군 현창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며 동상 건립이 추진됐다.

김빈길 장군 동상의 작품명은 '장군의 귀환-다시 이곳에 선 영웅'이다.

생전에 고향을 떠났던 장군이 620여년 만에 고향인 낙안에 귀환해 다시 서고자 했던 간절한 염원과 위풍당당한 장군의 위엄을 담은 작품으로, 낙안읍성 축성과 왜구 토벌전을 지휘하는 김빈길 장군의



지난 28일 순천 낙안읍성에서 읍성을 최초 축성한 김빈길 장군의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순천시 제공>

모습을 형상화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동상 제막을 시작으로 낙안읍성과 함께 김빈길 장군이 순천을 대표하는 역사인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순천의 역사인물을 발굴하고 널리 현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양해공 김빈길 장군 동상.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 作 名 作 名 作

광화문父子작명가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作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